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김복순*

차례

1. 전후의 화두 ‘여성교양’과 남성 중심적 계몽
2. 시민교양으로서의 여성교양과 역사적 상대성의 인식
 - 2.1.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 긍정적 특수성의 인정 하 지배전략의 이중성
 - 2.2. 여성젠더의 여성교양
: 역사적 상대성의 주장과 여성 열등성의 거부
3. 국민교양으로의 전환과 교양/전문 이분법의 등장
 - 3.1. 군사화되는 신어머니 교양과 전통의 차용
 - 3.2. 여성 권력의 기원으로서의 주부교양과 교양의 타자화
4. 맺는말

국문초록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교양의 개념의 구체적 내포 및 변모과정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950·60년대 여성 정체성과 근대성의 개념은 고정된 집합체가 아니라 구성체로서 젠더화 된 것이며, 정치적 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후에도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여성교양은 젠더별, 세대별, 시기별로 다른 내포를 띠고 있었다. 전후의 여성교양은 시민교양으로서의 여성교양이었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남성 중심적 보편

* 명지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성 하에서 여성자질이러는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하위 파트너로만 여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음에 반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여성의 열등성을 거부하고 역사적 상대성 범주로 위치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여성교양을 통한 남성젠더의 지배전략의 이중성은 교양개념의 계층별 적용, 여성 간 상호 타자화 전략, 여성교양의 서구화 경향에서 목도되었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문화적 교양, 예술적 교양, 서구적 교양, 에티켓 등이었지만 미국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남성젠더가 ‘여성교양’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들을 호명하는 방식은 ‘위험한 여성’들을 미지의 서구적 교양으로 유인하면서 흐려진 젠더 경계를 재편하여 새로운 ‘남성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반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역사적 상대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 관계설정 하면서, 남성과 동일한 민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여성교양을 역설하였다.

1962년 이후에는 여성교양의 개념이 국민교양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군사화되는 교양의 면모가 일견 드러나지만 아직 국민교양=군사화된 교양은 아니었다. 이때는 젠더 범주보다 세대 범주가 우선성이었다.

1965년 이후에 이르면 ‘교양’의 의미가 퇴색하여 여성교양이란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부학 등의 전문성과 더불어 교양/전문의 이분법이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의 주부는 ‘제도로서의 주부’로서, 어머니의 위상을 수정하고 전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합리적 폭력으로서의’ 권력을 지니게 된다. 이는 여성권력의 기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한편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지식의 전문화에 기초하여 교양을 타자화 하였다. 1965년경부터 교양은 시민교양 또는 국민교양이라는 범박한 범주에서 벗어나 각종 ‘전문’성 및 ‘실용’성과 대결해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걷게 된다.

1950년대는 여성이 시민으로 등장하고, 여성젠더에 의한 역사적 상대성의 발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 시민과 페미니즘의 ‘불행하지 않은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1960년대 역시 주부교양이 여성권력의 기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 시민과 페미니즘의 ‘불행하지 않은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페미니즘 경제학에 입각하면 주부라는 가정 내 여성을 새로운 변혁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비전이 가능하다.

핵심어 : 여성교양, 남성 중심적 계몽, 시민교양, 국민교양, 군사화된 교양, 신어머니학, 주부학, 여성 권력, 남성 중심적 보편성, 긍정적 특수성, 역사적 상대성, 여원, 현대, 사상계, 에티켓, 정총량, 전해린, 보살핌 경제, 페미니스트 경제학

1. 전후의 화두 ‘여성교양’과 남성 중심적 계몽

이전 연구에서 검토한 바, 교양(culture, Bildung)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의 동력으로서 갖는/요구되는 힘’으로서, 자질, 덕성, 능력 등의 내적·외적 형식 및 가치를 말하며, 인격 배양을 위한 보편적 지식으로서 일반적 지식과 연관된다. 개별 인간의 차원에서 교양은 개인적 정체성과 가치관, 지식, 품성으로 구성되(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구성원의 관계적 행동에 관한 문화적 차원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근대적 교양’ 개념은 근대적 지(知)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이전 계급사회의 ‘신분’ ‘혈통’ 또는 ‘종교’의 대체물이었다. 서구에서 중세적 지식의 대상은 ‘신’이었으며, 조선시대의 경우 그 대상은 ‘가(家)’ 및 ‘가’와 연결된 ‘국(國)’이었다.

그런데 서구의 근대적 교양개념이나 서구의 교양 개념이 의존하고 있는 ‘개인’, ‘교양의 일반화’에는 여성젠더가 소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교양 개념에는 부르주아적 속성과 체제순응적 속성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규제적 성격이 지배적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위와 동일시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동일시되어 국가를 국민 전체의 완성의 대행자로 천거한다.

따라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교양/여성교양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기존의 교양 개념에 배제되어 있는 젠더를 불러 들여, 젠더 불평등 상황 및 구조, 젠더의 배치과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교양/여성교양을 생산/재생산하는 제도 및 구조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체제변혁성을 갖는다. 따라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여성교양을 논의한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사회의 아비투스를 가로지르는 상징투쟁이 된다. 여성교양은 일종의 상징자본, 문화자본인 동시에 문화적 재생산 과정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대항담론의 성격 및 기능을 갖는 것이다.¹⁾

이는 교양/ 여성교양의 주체가 남성이며, 계몽의 방식 또한 남성 중심적임을 의미한다. 계몽의 남성 중심성 하에서 여성문제는 인식과 실천의 양 측면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계몽이 젠더정치의 측면을 갖고 있어, 계몽의 ‘동일적 목적지향적 성격’과 ‘남성 중심적 성격’은 같은 지배의 원리가 작동하기²⁾ 때문이다.

따라서 교양 개념을 재 젠더화 하는 동시에, 여성교양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젠더질서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남성 중심적 계몽은 교양개념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결과적으로 남성 중심주의를 견지하며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양’을 ‘공통감각에 기초한 포괄적 지식’이란 의미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과학을 가로지르는 공통기반으로서의 앎을 의미한다³⁾’고 볼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바, 남성젠더와 여성젠더의 여성교양 개념은 확연히 달랐으며,⁴⁾ 이는 인식

1) 이상은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제17집, 2007, 서론, 179~185쪽 참조.

2) 이종하, 『남성적 계몽의 해석학』, 『철학연구』 제74집, 2006. 64쪽.

3) 고미숙, 『근대적 ‘앎’의 배치와 ‘국민교양’의 탄생』, 『인문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고미숙의 ‘공통감각’에는 젠더가 소거되어 있어 남성 중심적 계몽 개념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미숙의 공통감각에서 ‘공통’은 ‘남녀 공통’이 아니라 ‘남성들의 공통’을 의미한다.

의 방법 차원에서 볼 때 다른 범주보다 성 범주가 우선성이었음을 확인 시킨다.

또한 교양의 개념에서 culture와 Bildung의 차이⁴⁾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대초기의 교양 개념은 culture보다 Bildung 쪽에 가까워서, ‘완성된 지적 체계의 전수’라기보다 ‘수양을 쌓아 습득하는 지식’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근대초기의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개념이 Bildung 쪽에 가깝다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 개념은 culture쪽에 가까웠다. 1950·60년대 교양 개념은 어느 쪽의 개념으로 소통되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 ‘엘리트 지식인들의 중핵문화’로 받아들여졌는지, ‘일반대중의 수양주의’에 더 가까웠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⁶⁾

본 논문은 여성교양에 대한 남성 중심적 독해의 편향성을 지향하고,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이며 동시 변증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여성주의 = 남성 중심주의라고 호도해서도 곤란하며, 차이와 보편성과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차이의 합리적 조정과 적용에 대한 현실사회의 내적 연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후 1950년대가 과도기·침체기에 불과한 것인지, 1960·70년대에 이르는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여성을 타자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왔는지⁷⁾도 검토할 것이다. 또

4) 근대초기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의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부정적 특수성에서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앞의 글 참조.

5) 독일의 Bildung과 영국의 culture는 ‘수양을 쌓아 습득하는 지식’과 ‘완성된 지적 체계의 전수’라는 뜻으로 차이가 있다. 신인섭, 『교양개념의 변용을 통해 본 일본 근대문학의 전개양상 연구-다이쇼 교양주의와 일본근대문학』, 『일본어문학』, 제23집, 2004.

6) 일본의 교양주의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중핵문화’로, ‘일반 대중의 수양주의’와는 다르다는 연구가 있다. 근대초기의 경우, 일본의 다이쇼(大正) 교양주의는 철학이나 역사, 문학 등의 인문서 독서를 통한 인격주의로, 다이쇼 시대에서부터 구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엘리트문화를 일컫는다고 확인된다. 신인섭, 위의 글.

7) 이 시기를 다룬 김은실, 김현미, 문승숙, 이수자 등의 선행연구는 한국의 근대화

조안 스콧이 언급한 바 여성이 사회·역사적 제도화의 산물이거나 담론의 효과⁸⁾이기만 한지도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전후의 우리 사회는 전쟁의 참상을 수습하고 혼란과 동요를 극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욕과 희망이 넘쳐 났던 시기였다. 이러한 의욕은 특히 전쟁을 통해 공적 영역에 진출하면서 그 지위가 상승 일로에 있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미 유령이 되다시피 몰락해 버린 교양을 부활시킬’⁹⁾ 담론을 추동하게 하였으며,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여성교양’은 전후의 ‘화두’로서 새로운 제도화의 메카니즘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관점 하에 전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의 여성교양지 중 하나로 인식되었던 월간 잡지 『여원』을 중심으로,¹⁰⁾ 여성교양의 개념이 젠더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어떻게 변모되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와 같이 분석하였다(김은미,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성별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2001. ;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2001. ; 문승숙, 『민족공동체만들기』, 최정무 외 저,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젠더와 한국 민족주의』, 삼인, 2001. ; 이수자,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여성주의 문화론적 성찰』, 『여성연구논총』 제15집,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2000).

이들의 연구에서 여성의 자율성은 뚜렷한 독립변수가 되지 못하고 남성이배라는 거대한 사회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종속적 변수에 가깝다. 그 결과 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변혁에 주체적으로 동참할 수 없으며, 결코 그런 역사도 없고, 그 결과 또한 현재와 마찬가지로 남성이배의 거대한 사회적 종속 상태일 뿐이라는 패배주의에 이르게 하는 방법론적 결함을 갖고 있다. 필자는 그간의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 해온 바 조그만 차이일지라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페미니즘 방법론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해방적 요소의 쟁취는 남성들의 시혜에 의한 것이란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8) J. SAcott, 荻野美穂 역, 『ジェンダーと歴史學』, 平凡社, 1992, 2002. 제1부, pp.31~86.

9) 주요섭, 『교양이라는 유령』, 『사상계』, 1957.7, 256, 260쪽.

10) 1955년 10월 학원사에서 창간되었으며, 발행인은 김익달, 주간은 김명엽이었다.

는지, 구체적 내포와 아울러 계몽의 대상과 주체의 변모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약 16년간의 이 시기는 크게 1962년을 중심으로 대분된다. 1962년 이전(1기)은 4·19를 중심으로 소시기 구분이 가능하며, 1962년 이후(2기)는 1965년부터 소시기 구분¹¹⁾이 가능하다. 이들 시기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 여성교양의 내포와 주체의 우선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¹²⁾

젠더별,¹³⁾ 시기별, 계층별, 지방별로 분화되기 시작하는 교양 개념 뿐

이후 1956년 김명엽이 여원사를 창립하면서 여원사에서 발간하게 된다. 1958년 7월에는 여편집장 이무현으로 바뀐다.

11) 경제적으로 1차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되고, 정치적으로 한일회담 및 군사적으로 월남 파병 문제가 일단락 되는 시점이다. 사회 방면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담론의 변화를 야기한다.

12)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 시기를 연속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4·19를 일종의 결절점으로 파악하여, 전후와 1960년대를 각각 논의하는데 그치고 그 연속성 및 연관성을 짚어내는데는 소홀하였다. 전후는 주로 자유부인, 아프레 결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면 1960년대는 전업주부의 등장을 유의미하게 다루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사회과학연구』 제15집 1호, 2007, 142~184쪽, 참조).

이러한 경향의 연구에서는 전후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1950년대는 4·19의 동력이기도 했다는 점, 여전히 여러 ‘민주적 지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1950년대의 이러한 지향들을 1950년대의 시대적 한계가 안고 있는 일종의 ‘차이’로 읽어내지 못하는 한 지배담론 위주의, 거대사 중심의 인식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 이러한 분석 태도는 사실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올바른 분석 태도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13) 여성젠더, 남성젠더로 분리하여 이론화 하는 이유는 섹스-젠더체계의 중첩성 때문이다. 원래 젠더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성(sex) 개념과 다른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 개념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섹스-젠더 체계의 중첩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물학적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젠더와 여성젠더가 있으며, 생물학적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젠더와 여성젠더가 분명히 있다. 또 어떤 때는 경계선 상에만 있을 때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중첩성은 ‘존재’ ‘의식’ 뿐 아니라 글과 말 등으로 표현-재현되는 모든 저작물에서 항상 발견된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이러한 점을 이론화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섹스-젠더

아니라 전후의 여성의 권력/지식관계의 총체적 재편 및 여성 동원 방식의 재편도 아울러 살펴 볼 것이다. 여기에는 여가-매너의 젠더화 과정도 포함된다. 이 시기는 해방 후 우리 사회의 각종 기원이라는 점에서 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페미니즘 시각으로 여성교양을 논한다는 것은 여성교양 및 여성노동에 관한 근대인식론 및 근대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2. 시민교양으로서의 여성교양과 역사적 상대성의 인식

해방과 전쟁을 통해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을 겪게 된다. 이러한 도시 집중 현상은 도시의 공업화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전쟁을 겪으면서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방위력을 구비한 도시를 거주지로 선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은 시민 계층을 대두시켰는데, 새로이 대두한 시민 계층은 해방 전과는 다른, 시민적 참여적 정치 사회 문화를 추구하고 발달시켰다.

여성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 시민으로 등장한다.¹⁴⁾ 미군정 시기에 인신매매 금지령(1946.5)과 공창폐지령(1947.10)에 이어 1948년 제정 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천명된 후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남녀평등의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

체계의 중첩성을 고려한 젠더체계 내의 하위범주 구성은 이론적 정교화를 위하여 꼭 진척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리주의의 우려가 상존한다.

14) 시민 및 시민사회의 개념은 논자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헤겔로부터 마르크스, 그람시,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용하는 시민 및 시민사회 개념은 내포가 상당히 다르다(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오장미경, 『시민사회론과 페미니즘』, 『여성과 사회』, 1997, 255~275쪽 참조). 여기서는 개인주의적인 경계의 시민을 말하는 자유주의적 시민 개념에 입각한다.

다. 비록 실질적 평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형식적 평등에 머물렀으나 1950년대 한국사회는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평등주의로 변화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민족을 분단하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날 무렵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모색들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잡지 『사상』의 창간¹⁵⁾과 함께, 『희망』 등 자유 민주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들 잡지는 ‘종합지’라고 소개되었으나, ‘종합’이라기보다는 ‘남성 중심적’이었고, 『사상계』의 경우는 교양지라기보다 지식인을 위한 ‘학술지’였다.¹⁶⁾ 이들의 국민, 시민의 개념은 남성 중심적 국민, 남성 중심적 시민 개념에 입각해 있었으며, 교양 개념 또한 남성 중심적이었다. 전후의 새로운 민족 민주적 지향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¹⁷⁾ ‘여성’ 범주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여성교양 개념이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에 반해 여성교양지들은 처음부터 여성교양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 여성교양지들의 여성교양 개념은 남성교양 또는 일반교양 개념과 차별화된 지점이 있었다. 여성 범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일반교양 또는 남성교양과 때로는 동일하게 때로는 다르게 구성하고 배치하였다.¹⁸⁾

15) 1952년 9월 창간되고, 1953년 4월 『사상계』로 속간된다. 창간시의 편집점은 발행인은 이교승이었으나, 속간시는 장준하로 교체된다.

16) 1953년 5월호 표지를 보면 ‘종합학술지’로 자기개념규정이 이루어져 있다.

17) ‘여성’이 배제되어 있어도 여성 주체화의 매개하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사상계』의 이러한 가능성 및 전후 여성지와 일본 여성지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18) 『여성계』는 1952년 7월 남성교양지 『희망』을 간행하는 희망사에서 나온 여성교양지였는데, 이 둘을 검토하면 시민의 젠더화, 교양의 젠더화 양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원』을 간행한 여원사도 남성 교양지 『현대』(1957.11)를 간행하였으나 6호로 중단되고 만다(58.5의 ‘편집실에서’에서 확인). 그 이유는 『사상계』와의 차별화를 피하지 못한 것이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파악된다. 『현대』의 기사를 일별하면 『현대』와 『여원』의 차이가 금방 확인된다. 『현대』의 키워드를 들면 문명, 선거, 한국적 현

전후의 대표적인 여성교양지로는 『여성계』와 『여원』이 있는데, 이들의 성격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잡지의 목표나 상정하고 있는 독자층 면에서 서로 차별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잡지의 기획도 거의 차별화 되지 않는다.¹⁹⁾

2.1.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 긍정적 특수성의 인정 하 지배전략의 이중성

전후 1950년대에는 여성도 시민으로 편입되어 시민의 자질 및 역할 기대가 요구되었다. 전후의 여성 시민에게 요구되었던 자질들, 즉 여성교양은 시민교양으로서의 여성교양이었다. 이등 시민으로 국한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교양을 쌓으면 보편적 인간 범주로 편입될 것임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던 시기이며, 여성교양을 착실히 온축하여 시민

대, 무기 등 전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사상계』의 내용도 여성지와는 상당히 다르다. ‘교양란을 보면, 『한비자』 『실존주의의 몰락』 『파리문학통신』(이상 55.3)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7.7월호에서는 ‘교양’ 특집을 다루는데, 『교수대에 선 진리』, 『아이브즈의 음악과 생활』, 『교양이라는 유행』, 『관료정치 생태』의 네 편의 논문과 ‘교양연재’라는 연재물로 『누가 반역자이며 누가 애국자인가』 『파스칼』 『실천이성비판』 『근대경제학』 『법이론비판』 등이 실렸다. 남성교양의 내포는 음악 등의 예술적인 것 외에 인문, 사회, 정치, 철학, 경제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여성계』는 1952년 12월 임영신이 인수하고 조경희를 편집장으로 두었다. 1952년 창간시에는 여대생보다 여고생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여대생으로 옮겨 간다. 1954년까지 국내 정치에 관한 기사도 적지 않게 다루었는데, 이는 『여원』이 세계정치 기사는 상당수 소개하면서도 국내 정치 기사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점과 대조된다. 하지만 『여성계』도 1955년 10월 『여원』이 발간된 후에는 정치보다는 문화쪽으로 기사의 영역을 이동한다. 두 잡지 모두 문화 중심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조경희는 『여성계』 주간, 이무현은 58.7 한국 최초의 여편집장으로 『여원』에 입사 하나 전체적인 논조는 그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의 여편집장의 역할은 뚜렷이 차별화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여편집장의 ‘남성젠더’성을 확인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 『신여자』의 여성 편집자의 의미와 상당히 다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온전히 지닐 수 있던 시기였다. 즉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에서 여성자질이라는 긍정적 특수성이 인정되어 남성적 보편성에 편입되거나 역사적 상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지닐 수 있던 시기였다.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여성을 사적 개인이면서도 공적 개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 시대에도 자유주의 여성론이 대두된 적이 있었으나 실제 현실세계에서 여성을 사적 개인이면서도 공적 개인으로 인식하고 호명한 것은 전후에 이르러서이다.

새로운 시민사회에서는 여성의 경박, 무식, 무능이 퇴치되어 자신의 사회적 위치, 환경, 시대를 아는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여원』을 중심으로 볼 때, 여성교양의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즉 일반 시민적 교양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각, 인간에 대한 이해,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적 이해, 세계의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과학적 합리적 지식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면서, 여성이라는 ‘특수’에 해당하는 각종 지식과 인격, 예절에 관한 것이 부가되었다.

전후 여성 시민의 개념은 남성젠더와 여성젠더에게 각각 다르게 수용되었다. 잡지라는 매체에서의 남성젠더란 편집자와 필자 중 일부가 해당된다. 『여원』의 필자는 대개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교수, 전문인, 문학예술가 등이었다.

민주주의의 파도는 여성에게도 밀려와 눈부신 각성에서 ‘여성해방’의 구호는 설사이 없이 부르짖어졌다.

그러나 해방 10년을 맞이하는 오늘, 과연 어느 정도의 남녀동권은 획득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여성으로서의 이바지함은 얼마나 컸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이 솔직한 생각이다.

그 이유를 살피건대 여성의 문화의식이 높지 못하다는 결론에 용이히 도달하게 된다.

어느 나라든 여성의 문화의식이 낮고서 그 국가사회의 번영발달을 바랄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에 본사에서는……모든 여성들의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어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 공급코자 하는 데에 그 미의(微意)가 있다. (55.10, 25쪽)

『여성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창간사(사장 김익달)로서, 주요 내용은 여성해방과 남녀동권 획득, 여성의 문화의식 향상이다. 정치 경제 사회면에 대한 관심은 배제되어 있으며 문화 중심으로 국한시키고 있고, 여성을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로 구획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간사의 의도는 이후 『여원』 전체의 주조였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사회전반 및 남성젠더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였다. 남성과 달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의 담당자이며, 지적 향상이 필요한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남성젠더에게 여성은 열등한 시민으로 이해되어 있었다. 이때의 열등성은 ‘생물학적 열등성’과 결부된 ‘문화적 열등성’으로 지식과 교양의 부족이었으며, 문화적으로 열등한 여성들은 지식과 교양을 흡수하고 연마하여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즉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의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이었으며, 교양을 흡수하여 연마한다면 남성과 동일하게는 아니어도 여성-인간으로서의 위치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비석은 여성들이 ‘인생에 대한 교양과 지식이 부족’하다(57.11)고 하면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기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덕근은 여성들의 무교양이 여성미의 비극(60.11)이라 하였고, 여성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의 형태가 불구적인 형태임을 의미

(60.7), 여성은 사고력의 깊이가 부족(60.12)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무교양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는 자기향상 노력과 수양, 연마가 요청되는데, 조풍연은 『여대생과 교양』에서 교양이란 교육과 수양으로서, 교육(지성)이 없어서는 교양이 빚어지지 않지만, 그 교육은 수양이란 약물과 더불어 잘 반죽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여대생이 교양을 축적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뿐 아니라 민도(民度), 즉 민족의 교양도도 향상되는 것(55.12)이라고 말하였다. 장경학도 교양의 문제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되려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말한 바 있다.(59.6)

이와 같은 의도 하에 『여원』은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특집 및 기사를 게재하였다. 세계 여성지도자들을 소개한다거나, 세계의 움직임을 순발력있게 소개하는 ‘상식 콘사이즈’ ‘세계의 움직임’, 세계여성편력, 문학 및 여성에 대한 소개 및 이해, 기본 지식을 위한 독서 관련 지침들²⁰⁾들은 여성에게 이러한 교양을 습득케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여원』의 사명이었다. 실제로 『여원』은 창간사에서 새로운 시대 사조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여원』이 창간 1주년 기념 5대 사업계획 중 『현대여성교양총서』 10권의 내용이 『여성과학』 『여성과 취미』 『여성과 건강』 『여성과 육아』 『연애와 결혼』 『새로운 의식주』 『여성과 예절』 『여성과 행복』 『여성과 경제』 『여성과 교육』으로 구성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하지만 위 교양총서에 정치 경제 학문 및 지식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기획자로서의 『여원』의 여성교양의 함의는 ‘인간-여성’ 이면서 동시에 남성과 다른, 남성이 아닌 ‘여성/남성’ 개념에 입각해 있

20) 직장여성을 위한 독서씨클(57.10), 독서경향 재검토(57.10), 독서와 미(57.9), 독서안내(57.11.), 주부를 위한 문장 강화(58.1), 독자씨롱(58.2) 등은 여성의 독서가 교양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여 기획된 것들이다.

으며, 여성 지식의 젠더화가 목도된다.

남성젠더에게 남성교양은 지혜와 인격이 겸비된 것이지만 남성의 매력은 ‘힘’에서, 여성의 매력은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남성의 교양은 학식, 지성, 현실비판, 비타협의 정신이지만, 여성교양은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된다(박명성 60.11). 즉 여성교양과 지식은 성별 역할분담론에 정확하게 고착되어 있으며, 여성의 ‘차이’는 남성들의 ‘보편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가장을 돌보지 않는 것(58.3), 자유는 누리면서 의무는 소홀히 하는 것(김기우, 59.6), 내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박종화, 59.8), 가족계획에 동참하지 않아 적당한 인구를 유지하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것(심연섭, 59.9), 화장·의복·언어사용·대화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58.1. 58.10 등),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건호, 58.11), 자녀교육에 힘쓰지 않는 것, 외국문화 문물에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자세(춤바람), 계·직장생활 등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남성문화를 받아들여 중성화(남성화) 되는 여성 등은 무교양, 비교양, 가짜교양으로 언급된다. 심지어 서제숙은 감정 노출 안 하기, 아침하지 않고 상대 기쁘게 하기, 비위 맞추기, 환심사기, 귀엽게 보이려는 태도·아량 등을 여성교양이라 언급하기까지 한다(57.11).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의 여성의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어디까지나 하위 파트너십으로만 여성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자유와 자아, 인격, 예절(에티켓, 매너)의 개념도 젠더화 하여 이해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여성의 자유’, 인간의 자아와 ‘여성의 자아’, 에티켓과 ‘여성의 에티켓’은 다른 개념으로 정착되고 양식화 되었다. 애국, 안정, 자유는 전후의 중요한 세 가치인데 이때 여성의 자유는 남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여성도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녀야 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남성과 다른 것이어야 했다. 이는 당시 『여원』보다 먼저 발간된 『여성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었다.²¹⁾

이러한 인식에는 전후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과 두려움, 여성에 대한 경계가 은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가정에서의 경제권, 상권, 교육권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위험한 여성들’을 재배치하려는 남성지배 전략의 일환으로서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위치짓기(positioning)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짓기를 시도하는 남성지배의 전략은 이중성을 드러낸다. 이중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는 교양 개념과 관련된 이중적 시선으로서, 여성 전체를 시민으로 호명하면서 시민교양으로서의 여성교양을 언급하고 있지만 교양이란 용어가 ‘대상’과 만나는 지점은 주로 ‘여성’과 ‘여대생’이었다. 즉 여성교양, 여대생 교양으로는 쓰였지만, 주부교양, 식모교양, 어머니교양이란 용어는 당시에 쓰이지 않았다. 물론 ‘양치인 여성의 교양’ ‘주부로서 갖추어야 할 여성의 교양’ 등으로는 쓰였지만 주부교양, 어머니교양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자녀교양²²⁾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었음에도 주부교양, 어머니교양이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 직장여성에게도 교양이란 용어를 붙이지 않았다. 직장여성 은 교양의 일부분인 ‘에티켓’과 결합된다.

이는 사회적 책무를 진 계층을 여대생과 직장여성으로 보는 ‘계층별 인식’을 드러낸다. 즉 전체 여성계층을 대상으로 시민적 교양을 쌓아야 한다고 한편으로는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층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교양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하 또는 신세대/구세대로 여성을

21) 이규갑, 『여자의 권리』(54.11), 양기석, 『여성이 요구하는 자유』(54.12) 참조.

22) 여성교양이 ‘자녀교양’을 위해 요청된다(이순애, 59.5)는 기사는 근대초기 이후 지속되는 논리 가운데 하나이다.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

분리하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계층별, 세대별 여성교양의 분화를 읽어낼 수 있다. 즉 직장여성의 교양은 에티켓으로, 주부에게는 요리·꽃꽂이 등 의식주 및 가정문화와 관련된 가정 내적 교양 및 여가활용 등으로, 여대생에게는 여대생 교양으로 여성교양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에티켓은 전후에 집중적으로 강조되었다. 사회가 요구하는 신사회 질서 및 신생활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데, 이중 에티켓은 전후의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예절 덕목²³⁾이었지만 특히 직장여성에게 더욱 철저히 요구되었다. 이는 직장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에티켓으로 제어하려는 남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에티켓은 2호(55.11)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에티켓이 데모크라시에서 자라난다’고 함으로써 민주주의·개인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언급하는데, 이를 ‘모랄’로 인식하는 기사는 57년 1월에 특집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에티켓은 ‘모랄’로서, ‘몸에 지닌 교양’으로 정의된다. 에티켓은 공인된 사회생활의 예절, 인습 및 기준형식으로서 세상에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을 가리킨다. 인내에 견디는 지성인은 모든 것을 교양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의 균형의식이며, 동양의 미덕 중 중용과 통하는 말이다. 에티켓은 가정교육과 일반적인 교양을 통하여 그 ‘사람’에서부터 우리나라오는 것으로서 ‘몸에 지닌 교양’이어야 한다(106쪽). 여기서 교양은 대 사회적으로 자기규제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며, ‘몸에 지닌’ 것으로서 신체화 되어 아비투스가 된다.

에티켓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며, ‘육체와 물리적 생존에 대한 감수성’과 연관된다. 이는 상호의존적 인간들의 결합체를 전

23) 에티켓의 실천은 전후 풍속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였다. 심지어 맞선 에티켓, 약혼시절 에티켓, 결혼 당일 에티켓, 신혼여행 에티켓 등도 소개되었다.

제로 상호 의존관계 및 역학관계의 추이를 드러내며, 문명화 문화화 과정과 연관된다.²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화시키는 것’(57.1, 76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회 생활 상 반드시 있는 것’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일상에 대한 자(타)율적 통제와 만나는 지점, 즉 사회적 제재의 내면화로 이어진다. 에티켓은 섬세한 감수성과 세련성의 모델을 형성하고, 이에 위반되는 것은 비교양, 심지어는 ‘사회적 낙오’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고도한 자제 및 은폐된 형태의 폭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특권층에 국한되었던 에티켓이 여성-직장여성 계층과 결합되면서 에티켓은 시민적 성격을 띤다. 즉 에티켓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에티켓이 거리에서 침뺨기, 담배 피는 자세, 극장 관람시 꼴불견 등 흡연법, 담화법, 보행법, 식사법 외에 학식·지성·현실비판 정신 등이 언급되는(박명성, 60.11) 반면, 여성의 에티켓은 화장, 의복, 언어사용, 대화, 인사법, 호칭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다. 일상생활에 국한된다²⁵⁾는 점에서 에티켓의 젠더화도 확인할 수 있다.²⁶⁾ 직장여성 에티켓, 숙녀에티켓으로 호명되는 부분에서는 기성세대와 가정주부가 배제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에티켓이 더 강조되었다는 것은 여성을 통제의 수단으로 일종의 사회적 동원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자의식 및 사회의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에티켓이 전

24) 노버트 엘리아스, 유희수 옮김, 『문명화 과정: 매너의 역사』, 신서원, 1995, 2001, 제1장 참조.

25) 여성의 에티켓은 57.1., 58.1., 58.10., 59.9 등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26) 한국사회에서의 에티켓의 발생과 젠더화에 관하여는 후속 논문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후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여성 개인의 독특한 성격(차이 등)을 에티켓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 가운데 여성들은 이등 시민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존재의 성격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에티켓은 여성이 사회에 연루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여성을 아류적 가치에서 동등한 가치로 호명하는 일종의 사회장치로 기능하였다.

두 번째의 이중성은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 여성들 간의 상호 타자화 전략을 구사하는 지점에서 확인된다. 남성젠더는 도시/지방, 가정 안/밖, 여대생/직장여성, 현대여성/기성세대, 유한여성/노동여성, 주부/식모, 본처/첩, 미혼/기혼(올드미스와 독신) 등 끊임없는 이분법을 통해 여성 차별화 전략 및 여성 간 상호 견제 전략을 구사하였다. 전자를 들어 후자를 타자화 하고, 후자를 통해 전자를 제어하면서 상황에 따라 계층별, 세대별, 젠더별로 포섭, 배제, 동원의 전략을 차별화 구사하면서, 교양이란 이름으로 여성/여성 간을 위치짓기 하였다.

도시여성들은 지방여성들보다 사치하며, 지방여성은 도시여성에 비해 문화적으로 후진적이다. 직업(장)여성²⁷⁾은 중성화되어서 문제이고, 여대생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하지만 에티켓이 없는 직장여성은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배제한다(57.1). 한편으로는 직장여성의 불만을 다루며 이해를 해주고(57.3) 직장여성이 여성 전체의 교양과 지식을 측량하는 바로메타(조연현, 57.10)라고 하며, 직장여성들도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고 두둔하다가도(차동환, 57.5), 직장여성은 가정을 등한시하여 문제(56.9)여서 결혼할 때는 직장을 가지지 않은 여성을 원한다는 비율이 60%나 된다(57.3).

27) 1950년대에는 직장여성과 직업여성의 개념이 분화되지 않고 혼용되었다. 1965년 이후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데, 1970년대에 이르면 직업여성은 매춘 등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의미하게 된다.

주부들은 식모에게만 가사를 맡기지 말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직접 의식주에 참여하고 식모의 인권을 보호해 줄 줄 알아야 하며, 반면 식모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식모조합 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58.8 좌담회 ‘식모’).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식모 일을 하나의 직책으로 판단하고 신성한 직업으로, 부(副)주부로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안춘근, 58.9).

‘현모양처는 학벌과 무관하다’(이덕근, 58.12)는 말은 여성의 학벌(력)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무관하다는 지적으로서, 여성들 간의 새로운 이분법을 만들어 남성지배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확인시킨다. ‘최고의 교양을 쌓아도 여자가 돌아갈 곳은 가정이다’란 말과 더불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지식있는 여성이라기보다 현모양처이며, 현모양처가 아닌 경우 학벌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쓸모있는 여성이 아니라는 함의를 유포한다. 현모양처/ 비현모양처, 유식/무식의 이분법을 만들어 전자를 들어 후자를 타자화 하는 가운데 남성 또는 사회의 요구를 유식과 교양(사회)보다 현모양처(가정)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중성의 세 번째는 여성교양의 서구화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점은 여성교양의 서구화 경향이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의 함의인 시민으로서의 자각, 인간에 대한 이해,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적 이해, 세계의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과학적 합리적 지식은 지극히 서구적인 것이었다. 서구 시민 개념에 입각한 자각이었고, 서구적 인간 이해 방식이었으며, 예술적 이해 또한 서구적인 내용들로 대부분 형성되었다. 한편으로는 ‘외풍에 젖어 몰지각한 행위를 자행하지 말라’(한창우, 56.1), ‘양풍에 몰들어’ ‘영화구경 댄스 등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 들어’간다면서(김내성, 57.4)도 정작 여성잡지가 제시하는 여성교양의 내포는 서구적인 것으로 위치 짓는 이중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었다.²⁸⁾

1950년대 예술 영역에서 주류였던 분야는 문학이었고, 영화는 새로운 대중장르로 부각되고 있었는데,²⁹⁾ 『여원』에 소개된 문학들은 소위 세계문학, 명작이란 이름 하에 서구의 문학들이 대거 공급되었다. 영화 또한 주 생산자인 미국의 영화가 대거 유입되어 소개되었고, 영화 주인공의 헤어 스타일(헵번 스타일) 등이 대유행처럼 여성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미국 중심적이지는 않았다. 비록 유럽문화보다 미국문화가 대거 유입, 소비되기 시작하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및 물질문명, 선진국, 현대화의 표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미국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다.³⁰⁾ 이때까지는 유럽의 철학, 영화 문화 등이 아직

28) 대표적인 기사로는 『미국인의 한국여성존평』(58.1)을 들 수 있다. 미국인의 시선으로 세대별 한국여성의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쳐 나갈 것을 권유한다. 너무 수줍어 하는 것도 병, 솔직하여 상냥한 기분이 없는 것도 병이라고 지적한다.

29) 55년의 '문화예술계'는 문학이 주였으나(55.12), 56년부터는 예술계의 배치에서 문학보다 영화가 앞서 제시되기 시작하였고(56.1) 영화 특집이 부쩍 늘기 시작한다. 『영화와 현대인』 특집(56.4)에서는 영화가 '이미 하나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후 『여원극장』 『여원명화관』 코너가 상설화되고 이에 할애되는 지면도 증가되기 시작한다. 58.8호는 『영화 스타와 현대인의 생활』을 특집으로 다루는데 책의 2/5가 영화특집으로 할애되었다.

그럼에도 예술적 교양에서 문학교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일 높았다. 각종 세계문학 소개 특집, 『문학사를 통해 본 여성의 비극』(56.7), 세계문학에 나타난 사랑의 서한집』(56.9), 『한국현대문학 반세기』(56.7), 『현대 세계문학의 동향』(56.7), 『영미의 여류작가들』(56.7), 『한국여성의 독서경향 재검토』(57.10) 등 문학관련 글은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30) 상허학회의 2006년 11월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 특집호(제18집)는 1950년대에 이미 미국 중심이 되었다고 본다. 이 특집에 실린 이은주, 김세영, 이선미, 강소연, 김현숙의 5편의 논문 가운데 이러한 관점이 두드러진 것은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의 글이다. 상허학회,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 깊은샘, 2006, 107~136쪽 참조.

이러한 시각은 2007년 현재 한국사회의 미국 중심성을 역추적하여 그 기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서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1950년대의 '사실'에는 맞지 않는다. 강소연은 '1950년대 여성지가 미군정부 등으로 인해 미국의 지대한 영

미국과 동계에서 유입되고 소개되었으며, 가치의 측면에서도 폄하되지 않았다.³¹⁾

이는 『사상』 『사상계』 『현대』 등의 남성지가 미국적인 것에 경도되지 않고 서양과 관련하여서도 유럽의 철학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등에 ‘더’ 비중을 할애하였고, 전통 또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는 지점이다. 『사상계』는 1955년 10월부터 ‘현대사상강좌’라는 특집을 마련하여 동서고금의 사상을 아울러 소개하며, 동양적 인간관과 서양적 인간관을 비교한다(55.10). ‘종교의 기원’이란 특집에서도 동서양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민족해방운동’(57.4), ‘동양의 재발견’(57.8)을 실는다. 여원사에서 낸 남성교양지 『현대』도 『사상계』만큼 철학, 사상 등에 비중을 두지 않았지만 역시 미국 중심은 아니었으며, 전통 또는 한국적 특수성에 관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창간호의 ‘한국적 현대’).

남성지와 비교할 때 여성지의 서구화 경향은 뚜렷이 목도되는 것으로서 1950년대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및 지식의 젠더화 경향은 서구화임

향력 하에서 문화지도를 그려나간 매체’(위의 글, 112쪽)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제적 정치적 연관관계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강소연은 ‘1950년대 중반의 여성지에서 사회의 주체로서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위의 글, 114쪽)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도 사실과 다르다(본고의 2장 2절의 정충량 부분 참조). 또한 여성지에서 주류를 이루는 여성상의 두 줄기를 ‘미국의 외적 이미지를 좇기에 급급한 미혼여성’과 미국의 에티켓을 겸비한 정숙하고 교양있는 ‘기혼여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분류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여원』은 여대생의 교양, 직장여성의 에티켓(즉 미혼 여성)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어 여성교양의 대상을 기혼여성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다.

31) ‘우리는 미국식을 버리고 독일식을 채택하여야만 살 수 있다’는 견해도 등장한다(이문호, 58.2). 58.8의 영화특집에도 2개의 글이 불란서 영화 소개였다. 시사코너 및 세계정치 소개, 상식 콘사이스 등에서는 아랍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등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확인된다. 다시 말하자면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서구화된 교양, 타자화된 교양을 전후의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는 것이었고, 특히 『여원』 등의 여성잡지에 드러나는 내포는 교양이라는 이름 하에 서구적 교양이 자본에 포섭되어 ‘소비’되는 것이었다. 특히 예술적 교양 중 영화의 경우 ‘소비되는 교양’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부각되었다. 교양의 ‘소비’는 대중잡지가 자본의 영역에서 교양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요시미 순야의 지적처럼, 이때의 소비는 표면적인 소비의 측면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소비되는 중층적 양태를 밝혀야 한다.³²⁾ 소비가 곧 생산의 방식이며, 내면화의 방식, 아비투스的方式이기 때문이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즉 문화적 교양, 예술적 교양, 서구적 교양, 에티켓 등은 이미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에게 다시 ‘전통’ 또는 ‘전통적’ 가치를 거론하며 예전의 현모양처로 돌아가라고 할 수 없었던 남성젠더들이 여성을 제도화 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1950년대 남성젠더가 ‘여성교양’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들을 호명하는 방식이다. 남성지배 전략의 이중성은 남성젠더가 여성을 계몽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계몽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였다는 증좌이며, ‘위험한 여성’들을 미지의 서구적 교양으로 유인하면서 흐려진 젠더 경계를 다시 세우고 젠더질서를 재편하여 새로운 ‘남성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남성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³³⁾

교양이 엘리트의 독점물이나 특권층의 자기변호를 위한 도구가 되지

32) 요시미 순야, 『냉전체제와 미국의 소비』, 『문화과학』 42호, 2005. 6, 171쪽.

33) 새로운 젠더재편과 관련하여 『여원』에서는 남성 특집이 무수히 다루어진다. 『남성 연구』(56.9), 『주부의 궁금증 풀이』(56.8), 『가장론』(57.1), 『미혼남의 여성관』(57.9), 『남성의 매력』(57.11), 『아내여 남편을 아는가』(58.2), 『남편의 신경질』(58.9), 『한국 남성의 매력』(60.11) 등 남성 연구, 또는 남성 관련 특집들이 끊임없이 제공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후 1950년대는 ‘남성사의 출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않기 위해서는 자신과 주위를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조망하는 ‘타자’ 영역의 설정³⁴⁾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후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타자’ 영역 설정의 의도적 불철저 상태로서 남성 중심적 체제유지 또는 변호의 도구로 기능하였다.

2.2. 여성젠더의 여성교양

: 역사적 상대성의 주장과 여성 열등성의 거부

여성이 여성해방 또는 인간해방에서 항상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전후에 여성들은 이미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각 사회분야에서 그 능력을 일정 정도 확인한 바 자신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역사를 다시 쓰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에 넘쳤던, 한마디로 역동적인 시기였다. 식민지 시대에 그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들이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었다면, 전후에는 ‘여성 전반’이 자신에 대해 역동적인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전환기적 성격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여성들은 자신들도 나름대로의 삶을 도모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및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합리적 정신으로 전후의 불안정하고 혼란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 대중들이 여성잡지를 열렬하게 구독³⁵⁾했던 것도 새로운 모색에 필요한 지식의 공급과 능력 확충, 자아 신장, 인격 도야 등의 자발

34) 서경석·노마 필드·카토 슈이치, 이복 율김, 『교양, 모든 것의 시작』, 노마드북스, 2007, 179쪽.

35) 『여원』의 독자호응도는 대단해서 거의 매호 매진될 정도였다. 서울 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잡지가 일찍 매진되니 더 많은 부수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58.8에는 동경 지국까지 창설하게 된다. 이때에는 아내에게 『여원』을 선물하는 것이 교양 있는 남성의 아내 사랑법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적 실천과 연관되어 있다.

여성들은 역사적 사회적 삶의 기반이 남성과 달랐던 만큼 남성과 좀 다른 견해를 도출하였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견해도 많았으나 그와 다른 견해도 분명 있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본질화 하는 본질주의적 시선이 아니라 당시의 ‘사실’을 ‘사실대로 읽는’ 작업이다.

(여성)시민성(citizenship)이란 (여성들이) 형식적 권리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투쟁하는 시민들의 물질적 비물질적 유형의 정치적 구성원의 성격³⁶⁾을 의미한다. 1950년대 (여성)시민성의 등장은 1987년의 민주화 이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대중동원의 결과라기보다 일부 지식인 여성 계층의 자각에 의해 전개된 결과였다.

역사적 상대성이란 남성 중심적 보편성이라는 폐쇄적 일원론에서 탈피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온 여성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상대적 가치를 수용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여성을 남성과 대등하게 비교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여성을 남성의 하위 파트너로만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여성으로서 남성 대 여성을 대등하게 위치지으려는 관점

36) 문승숙, 이현정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 문화, 2007, 16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승숙은 시민성의 등장을 1988년으로 보고 있으며, 박정희 정권의 성별에 따라 구분된 대중동원의 의도하지 않은, 변증법적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자유주의적 시민성 개념을 사용할 경우 시민성의 등장을 1950년 대부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유주의적 시민성 개념은 절대적 권력으로부터의 시민의 자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개인의 사상과 자유, 정부와 종교로부터의 자유, 생존권과 사유재산권, 자유로운 경제활동, 법에 의한 이들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강조한다(조형, 『여성주의 시민화 시대의 시티즌십과 시민사회』,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 이화여대출판부, 2007, 23쪽). 조형은 이 글에서 Nash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유주의 시민론에서 여성은 이중적이고 불명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성은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동시에 부인이나 어머니로서 종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모순적이고 애매한(undecidable) 위치가 부여되곤 한다는 것이다. Nash의 지적에 대한 대안은 본 논문의 3장 2절 참조.

이다. 즉 여성의 위치설정이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남성젠더에게서도 가끔 발견되지만 여성젠더의 논의에서 좀더 빈번하고 정치하게 제출된다. 물론 여성논자 가운데서도 남성 논자들의 관점에 밀착된 경우도 많았다. 비록 빈도수는 많지 않더라도 이러한 움직임은 소중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³⁷⁾

이 시기 여성젠더들도 물론 모두 여성의 열등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성젠더와 달리 역사적 상대성의 측면을 좀더 강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³⁸⁾

김활란은 제2호 권두언에서 ‘주관을 세워 가지는 여성, 자기 주관에서 나온 자기 생각을 흔들림없이 가질 줄 아는 여성’을 요구하면서 ‘이런 여성을 사회와 국가, 가정에서도 요구한다’면서 참된 민주주의는 이런 여성에서 건설될 것이라 역설하였다.(55.11, 27쪽)

전후 대표적인 여성 사회평론가인 정충량³⁹⁾은 『신문은 여성독자를

37) 전쟁 전에도 여성교양에 대해 역사적 상대성의 편린을 보이는 여성젠더의 글이 간헐적으로 보인다. 김향안은 『현대여성교양 미』(『부인경향』 1950년 7월)에서 ‘스스로 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수양이 교양인데, 아내·어머니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의 개성에다 적당히 농도를 맞추는 것이 곧 교양’이라고 함으로써 참다운 현대여성의 조건으로 교양을 언급하였다. 김경민도 『여권의 확립: 지정의의 조화』(『부인경향』 창간호)에서 식민지 시대의 분과학문적 교육, 형식에 치중한 교육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지정의의 조화인 교양이 종합교육과 실무교육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여성이 이러한 교육의 결과라고 봄으로써 김경민에게서는 역사적 상대성의 인식이 확인된다.

38) 한 예로 56.9의 『직장여성들에게 보내는 특집』에서 필자의 성별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남성과 여성 필자의 인식의 차이 및 논조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총 9편의 글이 실렸는데 남성필자의 글은 여성의 직장 진출을 반드시 찬미할 것은 아니다, 여성의 직장은 임시정류장인가, 주부가 직장을 갖는 경우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직장 간부로서 직업여성에게 부탁하는 말 등 여성의 직장생활 또는 진출을 비호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 필자들은 더 개척할 수 있는 여성직장, 후배 직장여성에게 주는 글, 직장에서의 남녀교제방법 등 호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9) ‘김애리사 송계월... 등도 신문 잡지에 평론을 썼으나 전문적 평론을 쓴 것은 정충

경시하고 있다』는 글(57.6)에서 신문이 교양의 쏠스인 동시에 여성들에게 문화적 의의를 베푸는 매체임을 강조하면서 ‘이 나라 문화책임의 반을 담당할 일천만 여성’에게 지면을 확장하여 계몽할 것을 강조한다. 고지식한 가정관을 혁신하고 지식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허다한 무식을 타파하는 일차적 책임이 신문에 있다고 일갈한다(64~65쪽). 정충량 역시 여성의 열등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나 여성을 남성과 대등하게 역사적 상대성 범주로 설정하려는 인식의 편린이 드러난다.

정충량은 여성들에 ‘의한’ 신생활운동을 주도하면서, 여성 자신이 자신의 위치와 환경, 시대를 아는 지성 및 교양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개개인 중심이 아니라 ‘단체’ 중심으로 여성의 연대를 강조하였다.⁴⁰⁾ 정충량에 의하면 여성교양이란 자기화할 줄 아는 지식과 능력, 즉 외래풍의 자기화, 유행의 단순 추수가 아닌 자기화, 신·구의 조화능력, 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좁은 시야 타파, 각 개인의 자중을 의미한다. 정충량이 생활의 간소화를 외치는 이유는 여성 개인의 교양 및 지식을 쌓기 위한 개인 시간 확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엌살림을 비롯한 가사노동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개선되어야 여성들이 각자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이 확보될 때 여성들의 지적 노력이 가능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57.6). 여기서 여가와 레크레이션 개념이 파생되어 나온다.⁴¹⁾

정충량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자기화’라는 개념을 통해 전통과 교양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 했다는 점이다. 『전통과 교양』이란

량이 최초...1959년 평론집 『마음의 꽃밭』을 출간. 조풍연, 『고독하지 않은 논객·평론가 정충량』(『한국최초의 여성들』 특집), 66.10, 176쪽.

40) 정충량, 『마음의 꽃밭』, 서울고시학회, 1959, 243쪽. 이 책은 총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장이 (여성)교양 장이다. 신생활운동과 주부, 교육이념의 반성, 내일이 없는 생활, 독서, 여성독자, 유행, 현대여성고 영화, 영화감상에 관한 12장의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41) 여가는 여성의 일과 노동을 취미와 구분짓게 하는 주 개념이다.

글에서 정충량은 전통을 소화하지 못한 채 외래풍의 모방에 머문 교양을 ‘가짜교양’이라 지적한 후 한국의 전통을 지닌 교양, 보이지 않는 미를 풍기는 것이 ‘진짜교양’이라고 언급한다. 전통과 교양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전통을 발판으로 각자 지감을 훈련하여 높은 교양에 도달해야 한다⁴²⁾고 역설하였다. 정충량의 진짜교양은 한국적 특수성, 현대적 특수성, 여성의 특수성, 개인적 특수성의 요소가 모두 내포되는 교양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 서구화 경향을 드러내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손소희는 『미혼남성의 여성관 비판』(57.9)에서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신랑감들의 정조관, 연애관, 결혼관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남성들의 이기적이며 소극적인 준열한 보수주의를 비판한다. 입으로 민주주의를 예찬하고 마음으로도 믿으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를 모르고 있으며, 새로운 민주주의가 요구됨에도 남성의 영원한 지배욕과 독선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문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 손소희의 생각이다(92~93쪽). 손소희는 민주주의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강신재는 『주부의 인종을 조화로 바꾸자』(57.10)에서 ‘새 시대의 가정의 조건’을 언급하는 가운데 자유를 직수입할 수는 없으나 여성들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새 가정을 주장한다. 남녀동권 및 가정 내에서의 남녀 의사의 상호 존중을 역설한다. 강신재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개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현안(90~92쪽)이라 보면서 여성의 자유가 개인주의 속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실생활 영역인 가정에서 이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2) 정충량, 『전통과 교양』, 『여성계』 1956.8, 124~127쪽.

『여원』이 여성 개인을 중심 단위로 인식하면서 여성의 자립성, 여성의 생활력, 자수성가 사례 등을 특집으로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1958년부터이다. 전숙희는 58.8의 「직장연애」란 글에서 ‘남자에게만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스스로 대등한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라 일갈한다. 조경희는 「자유부인은 남편이 만든다」(58.9)에서 서양풍 문화를 자기화 하지 못한 『자유부인』의 여주인공 오선영을 ‘천박한 교양’이라 비판하면서 남녀 모두 과거의 여성관 남성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문화 자유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라 노도 「남성 본위의 불평이다」(60.2)에서 ‘외국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몇·교양이 없고 소극적이라 하는 것은 남성 본위의 비평’이라 비판하였다(60.3). 모운숙은 여성들의 교양을 높이는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양여성클럽’을 조직하고 여성 문제를 아시아문제로 폭넓게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충량과 함께 이 시기를 대표하는 논자로 전혜린을 들 수 있다. 전혜린은 1959년말 귀국 후 1964년까지 자유주의 여성시민 개념에 입각한 견해를 여러 번제출한다. 전혜린은 여성의 약점으로 생 전반에 대한 비본연적 태도를 들면서 자기자신을 순간순간마다 의식하고 사회와 세계에 대해서 자기를 투기하고 초월하면서 사는 것이 본연적 태도인데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비본질적 존재로 여성을 만든 것은 여성의 지능 지수도 생리도 아니고 다만 사회의 상황인 것으로 사회와 가정은 여성을 가능한 한 비본질적으로 교육하기에 전력을 다해 왔다.

여성의 자주성을 찾으려는 가장 조그만 움직임이나 생각까지도 조소되고 비난받아 왔고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하게 생활을 건설해 가고 둘이 다 자아의 성장을 지속시켜 가는 공동체라고 보아야 할 결혼을 사회

는 여자의 궁극적인 숙명, 여자의 자아발족과 발전의 무덤으로써 또 어떤 절대적인 영광스러운 예속으로써 가르쳐 주어 왔다.

말하자면 비진정하면 할수록 여자다운 여자일 수 있다....이 모든 랫텔은 남성들의 사회에서 남성들에 의해서 붙여진 랫텔이다.

그러나 사회상의 변화에 의해서 남녀가 정말로 동등한 입장이 되고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세계에 향해서 자신을 초월하는 행위 속에 자기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여성은 개인적으로라도 무서운 고독과 절망과 싸우면서 자이를 찾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으며.....(60.12, 206~208쪽)

남성사회의 예속적 정책과 여성들의 무분별한 추종이 현 여성들의 지위를 형성케 하였다고 보면서 전혜린은 여성들의 자주성과 개인적 자아찾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정충량이 여성의 열등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여성의 역할분담 영역을 간접적으로 설정⁴³⁾하는 것과 다르게 전혜린은 여성의 열등성도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구성해 온 구성물임을 설파한다. 열등성 전제를 거부하고 여성교양 및 그 실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전혜린이 말하는 자주성은 남성의 예속적 존재성을 완전히 탈각한 동등성을 의미하며, 여성들의 자발적 예속은 남성 중심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도 강조하고 있다. 전혜린이 이 시기 최고의 여성 평론가인 것은 역사적 상대성 개념을 도입하면서 여성의 열등성을 거부하고, 여성교양의 불철저 문제를 여성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남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있다.

같은 12월호의 필벽의 강연 내용은 전혜린의 주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비록 외국 여성작가의 글이지만, 필벽은 여성도 한 나라의 국민

43) 예를 들어 신문 잡지들이 여성란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실생활 및 일상사에 밀접하게 연관된 지식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예로 소개되는 내용은 판자집 설계연구, 밀가루를 이용한 주식대용법, 조리의 과학화를 위한 영양 정보 등 의식주 관련으로 국한되어 있다. 57.6., 64쪽

일 뿐 아니라 시민이면서 세계의 인간인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자유를 확보하려면 자기 개인의 교양, 자기 교양 문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회에는…권력의 불균형이 있을 것인데…여인의 위대한 힘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60.12, 149쪽)…자유는 한 사람 한사람이 책임을 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인간 공동 사회를 같이 행복하게 만드려고 하는 인간성의 하나의 규정, 인간성의 물 그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156~157쪽)

필벽은 여성이 열등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해 여성들의 능력이 발휘되고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여성도 시민이며, 세계시민이라는 점, 자유 및 인간성이 하나의 규정, 하나의 룰에 입각해야 함을 설파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역사적 상대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을 남성의 하위 파트너십으로 보기보다 대등한 존재로서 관계설정 하고 있으며,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남성과 동일한 민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여성교양을 역설하고 있다.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하에서 여성도 독립된 개인이며(박순녀, 60.8), 민주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물론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에도 예술적 교양에 머물거나, 자기규제적인 교양 개념에 그치는 인식도 있으나(전숙희, 60.11),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에 비해 여성 개인의 자각과 실천을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근대초기부터 일관되게 드러난 현상으로서, 남성지배 전략과 여성들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남성들을 여성들을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 안에 배치하고 사회에 동원할 때는 하위 파트

너십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들은 대등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주체로서, 남성과 대등한 민주 시민 사회의 일 구성원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자유 및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⁴⁴⁾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 Bildung의 내포를 더 확보하고 있는 반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culture에 가까웠다. 하위 파트너로만 인정하려는 남성들은 남성지배를 위해 여성에게 끊임없이 남성 중심적 계몽의 Bildung을 역설하는 반면, 여성들은 수천년 이어져 온 장기지속의 그와 같은 문화를 culture로 이해하면서 그에 대한 수정으로서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단으로 이해된다.

전후 여성젠더는 자유·평등·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여성의 자각, 실천을 여성교양으로 호명하였으며, 여성지식인의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시민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때로는 조직의 필요성(모운숙) 또는 연대의 필요성(정충량)이 요청되기도 하였으나 각 개인의 자율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이 주된 것이었다.⁴⁵⁾ 남성젠더에게 여성은 계몽의 대상에 그쳤으나,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여성이 계몽의 대상이면서 주체임을 확인시킨다.

여성젠더의 계몽대상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여고생 이상의 여성들(범박하게 중상층)이 주 대상이었다. 남성젠더가 계층, 세대, 계급별 차이 없이 여성전반을 대상으로 삼았던데 반해 여성젠더는 중상층 여성을

44) 이 시기 여성독자들의 욕구 역시 ‘인간-여성’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창간호 간행 이후 『여원싸롱』 또는 『독자투고』란에는 ‘우리들 여성들의 교양지가 아직 우리 잡지계에는 전연 없었는데’(55.11, 212쪽)로부터, ‘원컨대 교양지로서의 수준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욱 수준을 올려 주십시오. 특히 창간호에 있던 『예술과 인생』같은 종류의 론설을 원합니다’(충남 장익순, 55.11, 213쪽),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계 소식을 대폭 확충해 달라’ ‘세계의 움직임’란을 늘려 달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기사를 더 많이 실어 달라’(59.4) 등이 있었다.

45) 이 점이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여성시민성과 다른 점이다.

시민으로 위치지으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여원』의 여성젠더 필자들은 중상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율적, 개인적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여성들은 남성젠더에게 수동적으로 동원당한 것만도 아니었으며, 서구 문화를 일방적으로 모방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여성젠더들도 나름대로 해석하는 행위력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었다.

3. 국민교양으로의 전환과 교양/전문 이분법의 등장

3.1. 군사화되는 신어머니 교양과 전통의 차용

4·19 이후에는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불거지면서 독재 배경이 여성의 의무와 권리로 부각된다. 공화정치를 개조하기 위해 신여성이 등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개진된 이후, 여성은 사회 국가의 새로운 계몽 대상으로 전격 떠오른다. 민주국가의 손색없는 여성이 되기 위해 정치적 무관심을 배제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여성이 요청된 것이다. 이제 핵심 키워드는 1950년대의 ‘자유’ ‘권리’가 아니라 ‘의무’ ‘책임’이었으며, ‘개인’ ‘시민’이 아니라 ‘국민’이었다.

정치란 남자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이제 여성들도 정치에 대한 과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시정하고 민주국가의 손색없는 여성이 되어야겠다(이태영, 60.7).

이 시기의 여성교양은 젠더별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세대론에 서게 된다. 세대론은 신/구 여성으로 계층을 분리하면서 민족적, 사회적, 국가적 구태를 척결하는 여성의 지식과 능력을 요구한다. 4·19와

관련한 기사는 1960년 6월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보다 큰 것을 위한 삶이’ 강조되면서, ‘한국여성의 후진성’ ‘한국의 데모크라시와 여성’ ‘제2공화국의 여성’ ‘기성 여성세대를 고발한다’ ‘선거와 여성’ ‘새 나라 새 터에 새 생활을’ 등이 특집 또는 중요기사로 다루어진다. 1950년대의 시민으로서의 여성 개인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새생활 건설, 새 사회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세대론에 입각하여 기성세대와 1950년대 여성은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타자화 된다.⁴⁶⁾ 범주의 우선성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세대’ 범주였지 ‘젠더’ 범주가 아니었다. 즉 2기에는 젠더 범주보다는 세대 범주가 우선성이었다. 남성젠더와 여성젠더 논객 모두 언설 내용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현 상황은 남성들의 갖가지 정치적 폭위를 방만한 여성들의 책임이며 나 하나만은 어떠랴 하는 여성들의 무책임과 오불관연, 무식이 나라를 요꼴로 만들었다(선우휘, 60.6)고 본다. 모든 부정적 상황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공화정치의 개조와 아울러 신여성의 등장을 요구한다. 여성은 제2공화국의 절반의 주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여성에게 요구되는 교양은 ‘산 교양’,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양’이다. 확실하게 주견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행사를 하는 것이다. 박순녀는 ‘가장의 의견을 따르지 말라’(60.8)고까지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입각한 유권자의식을 지닐 것을 역설하였다. 박순녀의 행동하는 여성이란 ‘여성 유권자 의식’이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세대론에서 산 교양의 여성 주체는 신세대로 호명된다. 진정한 새 생활을 위한 외래품 근절, 국산품 장려운동, 수입지출의 균등, 허영을 배격할 줄 아는 지식과 능력으로 정착시키면서, 신생활운동의 선봉으로

46) 기성세대 비판은 그 후에도 계속된다. 60.8을 비롯하여 매호마다 언급된다.

세대론에 입각하여 여대생들을 주체로 호명한다(60년 9월호부터). 새 시대는 기성세대의 것이 아니라 청년 대학생들의 것이다.

산 교양,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양은 5·16 후 더욱 강조된다. 5·16 후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안녕은 국민이라는 집단의 안녕을 토대로 한다는 전제가 유포되기 시작하였다.⁴⁷⁾ 사회의 변영과 쇠퇴가 내 가정과 직접 관련된다는 자각 하에, 국가와 민족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하여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62.8). 지난 날의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고 기울어진 국민생활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제건을 해야 하며...여성들이 이 시국을 바로 보고 실생활을 통하여 애국심을 실증해야 할 것을 강조 받는다(75쪽).

특집내용도 바뀌어서 ‘계량생활을 위하여’(61.1), 새로운 가풍 창조(61.4), 신어머니론(61.5), 표준론(61.6), ‘어머니의 역사’(62.5)로 이어지며, 5·16 이후에는 여성에게 가정 부업을 통한 외화 획득까지 획책하였다. 가족계획의 의미도 1950년대에는 ‘근대시민의 높은 교양의 발로(심연섭, 59.9)였으나, 이 시기에는 여성들이 ‘몸’으로라도 애국하는 것으로, 즉 ‘가족계획’은 몸을 도구로 애국하는 모성을 의미하게 된다.

내핍생활과 사치 금지도 1950년대의 합리적 생활, 건전한 가정경제를 위해서라기보다 군사혁명 정부의 시책이 우선 강조되었고, 생활의 합리화도 1950년대에는 여성들의 개인 시간 확보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합리적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조기준, 64.3) 하게 된다.

이렇듯 5·16 후의 여성교양은 국가 또는 국민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지식, 즉 국민교양으로 고정되기 시작한다. 제가(齊家)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면서(62.1) 제가의 책임은 부부 중심으로 위치시키고 국민으로서의 여성교양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한다.

47) 따라서 이때 인권 개념이 강조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63.2.

이 시기 여성의 위치는 노동력의 재생산, 민주적 단체의 총무, 집안의 대들보로 운위되면서, 1950년대의 ‘시민 우선성’(남성젠더)·‘여성 개인 우선성’(여성젠더)에서 ‘어머니 우선성’으로 재배치된다.⁴⁸⁾ 즉 시민 사회의 구성원에서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모성으로 여성 주체의 우선성이 전환된다. 시민교양도 국민교양으로 전환되는데, 5·16 이후 1962년 중순부터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드러난다. 여성교양 내포의 변화는 계몽의 대상도 수정하였다. 1950년의 여성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는 ‘중상층’에서 1962년부터는 ‘전 대중’으로 수정된다.

5·16이후의 1년 간은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가치들이 근대화 담론에 의해 대체되며 공론장이 일시 폐쇄되었던 시기이다. 물론 4·19의 지향과 5·16의 지향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5·16의 지향 가운데서도 긍정적 가치로 담보될 수 있는 영역 또한 가능하다.

국민교양으로 전환되면서 여성은 도구적 주체로 자리매김된다. 물론 1기와 별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있다. 아내 및 며느리, 남편을 고르는 조건에 건강, 성격 다음으로 교양이 언급되며(62.6), 전쟁신부(war bride)들이 교양의 차이로 국제결혼에 실패하게 된다고 진단하기도 한다(62.4). 또한 합리적인 생활시간 배분에서 가사종사 시간에 10시간, 휴식과 교양에 6시간 배분한다(62.9)는 조사도 보고되었다. 또한 새로운 교양으로서 명화감상, 음악감상이 지적되며, 영화감상이 적극 추천되기도 한다.(62.10; 63.1).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품위·멋·교양미(64.11)를 들기도 하였다. 또 양치인 여성의 교양으로 자주적 내조로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능력(62.7)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육체미보다 교양미를 기르자’(한태수, 65.7)에서 교양미는 정신의 미

48) 정운경의 월순아지매가 대표적이다.

와 조화감각을, ‘인생살이에 갖추어야 할 교양과 상식’(윤명중, 65.7)에서 교양은 삶의 지혜를 의미한다. 또 박목월은 이상적인 세가지 여성형 중 『무정』의 김선형형을 교양있는 현대여성 범주로 위치시킨다. 박목월이 말하는 교양이란 단아미, 한국적인 여성의 섬세한 우아미, 침착미를 의미한다. ‘복식은 신분과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교양’(65.6)이란 지적에서 교양은 의상과 연관된다. 또 ‘속으로 가꾸어 온 교양을 밖으로 발산시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참다운 의미의 교양미’(65.6)라고 했을 때의 교양은 겸손의 의미를 함유한다.

63.2호의 『우리집 며느리 자랑』에서는 ‘지성과 교양을 갖춘 여성상’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직장일과 가사일을 둘 다 잘 하는 점, 가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 봉사할 줄 아는 영민함이 있다는 점으로, 가정 내적 범주에서 수퍼우먼이 강조된다.

가사일도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평화롭고 단란하다 (윤일선)

집안 일을 잘 한다. (최정희)

치과의사인데, 살림도 잘 하고 영민하다. 손에는 책과 기저귀가 들려 있다. (황신덕)

2기에서도 여성교양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예술적 안목, 조화정신, 삶의 지혜, 상식, 그리고 의복, 화장, 말씨, 에티켓 등의 예절 등이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기에서는 1기와 달리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5·16 직후에만 예외) 예술에 관한 교양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2기의 소시기 구분이 1965년을 기점으로, 전반기는 국민으로서의 여성의 책무가 강조되고 새 생활운동의 담당자인 신어머니의 교양 문제가

제기된다면, 후반기는 전업 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분담이 확고하게 위치어지면서 의식주 및 가정관리자로서의 우선성이 강조되고 다른 것은 은폐되어진다. 즉 전반기의 여성 주체의 우선성은 신어머니였으며, 후반기의 여성 주체의 우선성은 주부였다.

신어머니학(62.10)에서 말하는 신어머니 교양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여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여성도 조국의 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어머니로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런 신어머니는 ‘모던마마’라 불리기도 하였다(65.12). 1950년대와 달리 시민적 주체로서 공적 영역에서 ‘직접적’ 담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주체로서 사적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백만 국군과 사회 역군으로서의 남성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바탕이 되는 여성의 교육은 실로 급선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독일군대를 기른 것도 용맹을 자랑하던 일본군을 육성한 것도 오로지 여성입니다.

마치 1940년 전후의 식민지 파시즘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 여기서 신어머니 교양의 핵심은 군인을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2기에는 이처럼 애국하는 어머니가 강조되었으며, ‘군사화되는 교양’의 면모를 드러낸다. 하지만 아직 이 시기는 ‘애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국민교양 = 군사화된 교양은 아니었다. 국민교양= 군사화된 교양으로의 변모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이다.

신어머니에게는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종전과 다른 자질이 요청되었다. 즉 자녀의 개성을 개발하기 위해 예능교육 등 전인교육에 봉사하고 실천할 줄 아는 신어머니(62.10)여야 한다.

모자님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육의 준비에 그치거나…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전인교육에의 봉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여러분은 마땅히 이러한 어린 세계를 조장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 전반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과 싹을 발견하고 복돋우워 주는데에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항상 같이 할 줄 압니다.(62.10, 353~355쪽)

신어머니는 절약적·합리적 생활의 대명사로 부각될 때는 ‘또순이’로, ‘구원의 여인상’으로 부각될 때는 신사임당, 이순신의 어머니 등으로 전형화 되었다. 어머니에 관한 기사는 1958년경부터 꾸준히 대두되었지만,⁴⁹⁾ 1962년경부터 다시 폭증하기 시작한다. 『신어머니학 입문』(61.5), 『장한 어머니』(62.5)를 게재하더니 63년부터 이은상을 통해 『구원의 여인상-어머니』를 연재하기 시작한다. 신사임당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이데올로기화 하면서 유행수를 신사임당과 유비하기도 한다.

2기 전반부의 신어머니 교양에서 특징적인 것은 더 이상 과학적·합리적 어머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어머니이지만, 이제는 ‘자녀와 동료가 되는’(61.5) 어머니여야 하고, 자녀와 정서적 공감대를 이룰 뿐 아니라 자녀의 개성을 포착하여 그에 맞는 정서교육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서적 여성’(66.1)이어야 한다.

신어머니는 봉사와 희생으로 가족을 돌봄으로서 국가에 봉사는 도구적 어머니이며, 전통적인 여인상의 희생 봉사 정신을 차용함으로써 전통은 모성 이데올로기 정착에 활용되었다. 의식주의 합리화에서는 서양식을 표준으로 하는 관념이 자리잡으며 전통이 무시되는 반면(공병우,

49) 『위대한 모성』(58.7)이란 란을 통해 우장춘 박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현대어머니론』(60.5) 등에서는 새현모양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63.3), 여성의 근대화와 관련하여서는 전통이 강조되며 전통적 어머니상을 전형화 하는 이중성이 드러난다.⁵⁰⁾

이 시기의 또 한 특징은 여성이 계몽의 대상으로만 전락하면서 더 이상 계몽의 주체로 요청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64년에 이르기까지 여성 필자는 전무하다시피 사라지며, 1964년 경 여성필자가 다시 등장하지만 논조는 남성젠더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3.2. 여성 권력의 기원으로서의 주부교양과 교양의 타자화

1965년 이후(2기 후반부)부터 점차 ‘교양’이란 용어가 잘 쓰이지도 않고 그 내용도 퇴색한다. ‘교양연재’로 『성 해방의 메모: 여인 12장』(처녀막, 유방, 독점욕과 성의식, 이브는 무죄 등) 같은 것이 ‘교양’이란 이름 하에 연재되기도 하였지만,⁵¹⁾ 더 큰 차이는 여성교양이란 용어는 쓰이지 않는 대신 주부학으로 변경되고, 교양/전문의 이분법이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1965년 경부터 교양 개념이 퇴색하는 것은 주부 전문성, 여대생의 전문성 등 전문성 개념이 탄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기 후반부에 이르면 주부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전업 주부로 등장한다. 여성 필자의 소개방식도 과거에는 수필가 등의 직종명, 직장명, 직책 등이 소개되었던 데 반해 ‘**씨 부인’으로 소개되고, 커리어우먼은 거의 자취를 감추며, 1965.1에 이르면 직책을 ‘가정주부’라고 표기하기에 이른다.⁵²⁾

50) 민족의 정체성 수립 및 민족문화 창달, 민족적 자각의 의미에서 전통 수호 및 현양 목적으로 예술제도로 채택되어 갖가지 행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기사도 엿보인다 (63.3). 이와 아울러 2기 후반기에 이르면 영화 등 예술 전반에도 ‘국적’이 도입된다. 『국적 모를 청춘회화』(65.3)는 1964년의 청춘영화 범람현상을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고 선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한다.

51) 이 연재는 성 해방이란 명목 하에 성적 스펙타클로서 여성의 성에 접근하는 시선이다.

52) 1965.3의 『학계개편에 대한 소고』의 필자 강영기도 직업을 ‘주부’라 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부학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 주부학은 주부의 영역이 전문영역 및 분과영역이란 인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즉 이제 주부는 결혼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 등을 통해 교육받고 수련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 되었다. 실제로 65.1에는 ‘여원주부학원’이라는 코너가 등장한다. 주부학은 가사노동을 포함한 주부의 노동이 전문영역이 되었음을 일러준다.

한국의 역사에서 볼 때 주부의 지위는 대략 3단계로 구분되었다. 1단계가 여성이 가사노동만 담당했던 시기로, 수입 지출에 대한 지배권도 없고 참여권도 없어 수입지출의 결정권이 없는 시기라면, 2단계는 수입은 주부의 책임이 아니지만 지출에는 절대적 발언권이 확보된 시기이다. 3단계는 해방 후 주부가 수입에 참여하면서 수입 지출 양면에 관여하고 주부가 진정한 소비자가 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전후에 실질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여성은 남성의 지배전략에 의해 가정 내적으로 지위졌지만, 사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가정 내에서는 수입과 지출권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비를 창출하는 소비자의 자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주부가 단결하면 물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57.3, 94쪽).

주부는 이제 가정 내적으로 쫓겨난 ‘안’ 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 단계 여성의 위치와 연관지어 볼 때도 ‘여성 권력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근대초기 남성젠더에 의해, 어린이교양을 위한 교육주체로서, 어머니로서밖에 여성이 위치지어지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정 내적 지배존재로서 ‘합리적 폭력으로서의 모성’을 확보⁵³⁾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차

53)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앞의 글 참조.

원에서 여성 권력의 획득으로 볼 수 있다. 즉 제한된 영역에서, 간접적 권력획득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여성들을 가정에 종속된 존재로만 볼 수 없는 지점이 발생한다. 남성젠더들은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외치지만 가정이라는 영역은 이제 사적영역에만 그치지 않게 되었고(남성들의 육아수첩 등 가정내 생활의 참여), 여성들의 가정 내적 지위 및 권력은 여성 권력의 기원으로서 위치지어진다.⁵⁴⁾

전문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주부의 교양은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넓고 상세하게 요청되었다. 가정생활의 합리화와 관련된 폭넓은 지식, 임신 분만 육아 등 어머니와 관련된 전문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각종 의식주 지식,⁵⁵⁾ 그리고 성적 존재로서의 몸에 관한 다양한 성 지식 등이 요구되었다. 남편에게는 올바른 협력자, 훌륭한 친구, 좋은 배우자, 경제적 관리자, 충실한 아내 등이 포함된다.

전문인으로서의 주부교양 및 지식은 현처양모, 능부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이었다. 능부(能婦)란 말 그대로 능력있는 주부를 의미한다. 현대 여성은 무엇이든지 할 줄 아는 현명하고도 능력있는 주부여야 한다는 뜻이다. 위에 언급한 주부교양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현명해야 한다. 당시에는 '새로운 현모양처'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는데, 새로운 현모양처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처양모⁵⁶⁾에 더 가깝다.

64.3의 『진학생을 가진 어머니의 페이지』는 어머니 우선성에서 주부 우선성으로 전환되는 좋은 사례이다. 주부교양이 '학생 잘 키우기' '좋은

54) '공처가' 특집(59.4 이후 61.3 등 여러 차례 기획됨)은 여성의 권력을 반증하는 기획이다.

55) 꽃꽂이는 '생활예술'로 '생활예술 교양'의 한 부분이 된다(65.9).

56) 한중일 삼국은 용어 및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현모양처인데 반해, 일본은 양처현모였으며, 중국 현처양모였다. 이 세 개념의 차이 및 사회적 연관에 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학교(일류중)에 보내기'로 수렴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65.2에 이르면 '살림 잘 하는 주부란 '수재를 길러 낸 어머니'로 인식된다.⁵⁷⁾ 살림 잘 한다는 것의 의미가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의 합리화로 절약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예전의 주부'의 의미에서, 정서교육⁵⁸⁾ 뿐 아니라 가정교사 역할, 자녀의 전 일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디자인 하는 (학습태도 교정, 수면관리, 교과지도, 독해력 지도 등) 어머니의 개념이 주부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다. 또한 남편에게 새로운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것도 주부의 역할(이준례)로 제시된다.

핵가족 사회에서, 가정은 자녀의 입시교육을 위해 전 일상사를 재편하게 된다. 가족까지 규칙생활에 임하게 만들며(416쪽), 가정 내의 모든 일상사 및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이 자녀입시를 위한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주부에 의해 기획되고 실천된다.

핵가족 시대의 주부는 예전의 어머니의 위상을 수정하고 전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권력을 지니게 된다. 이는 전업 주부가 막스 베버적 의미의 합리적 지배를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때 '제도로서의 주부' 하에서 주부의 지배는 여성권력의 기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근대초기에는 '제도로서의 주부'가 주창되었지 실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가정에서의 '합리적 폭력으로서의 모성'은 공인된다.⁵⁹⁾

주부의 권력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재량권'이라든가 또는 '공적 영역과 생산노동에서 배제함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비권력자 형태', 경제적 무능력자⁶⁰⁾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다. 앤 포어의 지적대로, 주부가 자본주의에 의해 생겨나고 재생산된, 즉 공사영역이 분리

57) 『연재 르포르타주: 살림 잘 하는 주부 ⑤』

58) 정서교육 특집 연재는 65년 전후로 계속 이어진다.

59)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앞의 글 참조.

60) 장미경, 앞의 글, 151, 148쪽.

되면서 생겨난 산물이고, 근대적 가치체계나 문화제도에 가부장제 은폐 구조가 분명 내재하는 것도 그릇된 지적은 아니다. 전문 영역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교양이면서도 교양도 아닌 이 어정쩡한 주부의 모순적 위치가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모순 상태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재생산 노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현 단계의 가치체계나 문화제도 및 개개인의 욕망의 지향성들에 입각할 때 주부의 전문영역인 재생산 노동 및 가정 내에서의 권력은 단순히 보조자(내조자)의 재량권이라는 용어로 국한시킬 수 없는 새로운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즉 여가, 복지, 해방 개념과 관련하여 재생산노동에 대한 재해석이 요청된다. 재생산 노동은 단순히 보조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 및 이에 입각한 인간 해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 추구권 및 그에 기반한 인간해방은 20세기 후반 들어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재생산 노동을 가치절하 하는 견해의 보다 더 중요한 비판 지점은 재생산노동보다 생산노동을 중요시하는 근대경제학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다. 생산성 및 재화의 효율성이 중요요인으로 인식되는 근대화 논리에서 경제적 성장만큼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가치평가 해줄 수 있는 요인은 없다. 시장은 수용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관점, 생산성 및 효율성에 입각한 「경제학비판」의 경제논리에 의하면 ‘생산’의 의미만이 부각된다.

21세기에는 다원적 가치가 인정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및 복지의 실현이 중시된다. 따라서 생산성 및 효율성 위주의 ‘노동’ 개념에서 ‘보살핌’에 입각한, ‘보살핌 경제’(care economy)로의 수정이 요구된다. 효율성의 의미도 수정되어야 한다.⁶¹⁾ 생산의 효율성보다 재생산의 효율성이 진정한 인간해방과 관련하여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근대화론에 있어서의 개발 논리와 젠더와의 관련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근대화론-개발론에 입각한다면 재생산노동은 재화생산에 있어 생산노동보다 하위일 수밖에 없다. 이제 보살핌노동과 가족의 상대적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생산성 및 효율성 위주의 근대경제학이 수정되어야 한다. 페미니즘 경제학(feminist economics)은 근대경제학의 개발 및 발전의 패러다임이 수정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보살핌 경제는 보살핌 노동과 가족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주부라는 가정내 여성을 새로운 변혁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비전의 관점이다.⁶²⁾

2기 후반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 교양/전문 이분법이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1965년 경부터 교양 개념이 퇴색하는 것은 주부 전문성, 여대생의 전문성 등 전문성 개념의 탄생과 연관된다.

67.4의 특집 『여자의 대학교육 꼭 필요한가』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을 나와야 필수교양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87%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⁶³⁾ 여기서의 교양 개념은 교양/전문 이분법이 전제된 개념이다. 즉 대학교육은 전문교육이고, 교양과 무관하다는 인식이다.

2기 후반부의 교양 개념은 전문과 대립되는 내포를 담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교양은 여성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머니교양, 주부

61) 原 伸子, 『ジェンダーと『경제학비판』』, 『市長とジェンダ』, 法政大學出版局, 2005, 3~26쪽.

62) 村松安子, 『『ジェンダーと開發』論の 形成と展開』, 未來社, 2005, 25~45쪽.

63) 이 특집은 ‘대학교육이 사회적 효용성이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교육의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가정의 근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 당시 여대생 교육의 질적 수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여대생 교육(전문교육)이 가정의 근대화에 직결된다는 함의를 드러낸다.

교양으로 어머니 또는 주부의 영역을 전문 영역으로 분류하며, 지식과 연관될 경우 교양/전문의 이분법적 대립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근대초기의 교양개념이 인간/비인간의 대립으로 정초되었고, 1950년대의 교양개념이 시민/비시민의 대립개념으로 정초되었다면, 2기 후반부의 교양개념은 교양/전문의 대립개념에 입각하여 정초되기 시작한다. 근대초기의 교양개념은 인간을 비인간(동물)과 비교하면서 ‘인간되기’의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 보는 관점이다. 근대초기의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이 ‘인간인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근대초기의 교양개념은 비인간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주체적 개인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덕목을 가리켰다.

하지만 2기 후반부에 이르면 각종 전문성이 등장하고 이때 교양개념은 ‘전문이 아닌’ ‘비전문’으로서의 교양 개념으로 타자화 되기 시작한다. 고등교육의 보급,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교양주의를 배척하는 기제가 된다. 해방후와 전후에 우후죽순처럼 생긴 고등교육기관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는 집단을 대거 방출하였다. 1967년 경의 대학생 수는 해마다 7000명이 입학하고 6000명이 졸업(67.7)하는 상황일 정도로 대학생의 수는 증가하였다.

전문분과학의 산실인 대학교는 지식의 전문화에 기초하여 전문분과학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교양이라는 보편적 지식 및 덕목을 타자화 하였다. 전문화 주의는 교양의 필요성을 약화 또는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전문직업과 연관된 전문분과학은 교양이라는 일반적 지식 또는 보편적 지식체계를 타자화 하는 시스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67.7의 양케이트에서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여성의 80%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양케이트 결과 분석에서 이대 김종서교수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효용성’

이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교양은 이제 교양/전문의 대립에서 더 나아가 교양/실용이라는 대립관계와도 대결해야 하는 험난한 길과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대립구도는 20세기 후반의 교양에 대한 폄하 및 21세기의 교양에 대한 재설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양과 전문분과학이 대립하는 관계인지는 또 다른 논의의 장을 필요로 하지만, 1965년 이후의 교양 개념은 교양/전문의 이분법 속에서 ‘전문’ 개념의 대립개념 또는 비전문이란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경부터 교양은 시민교양 또는 국민교양이라는 범박한 범주에서 벗어나 각종 ‘전문’성 및 ‘실용’성과 대결해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걷게 되었다.

4. 맺는말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교양의 개념의 구체적 내포 및 변모과정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950·60년대 여성 정체성과 근대성의 개념은 고정된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집단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 및 권력의 구성체로서 젠더화 된 것으로서, 언제나 정치적 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후에도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여성교양은 사회조건이 여성이라는 성 범주라는 맥락에서 선택적으로 이용되고 재구성된 것이었다. 여성교양은 젠더별, 세대별, 시기별로 다른 내포를 띠고 있었다.

1950년대에는 여성도 시민으로 편입되어 시민의 자질 및 역할기대가 요구되었다. 전후의 여성 시민에게 요구되었던 자질들, 즉 여성교양은 시민교양으로서의 여성교양이었다. 일반 시민적 교양에 해당하는 시민

으로서의 자각, 인간에 대한 이해,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적 이해, 세계의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과학적 합리적 지식을 기본 내용으로 하면서, 여성이라는 ‘특수’에게 부과되는 각종 지식과 인격, 예절에 관한 것이 추가되었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에서 여성자질이라는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하위 파트너로만 여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음에 반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여성의 열등성을 거부하고 역사적 상대성 범주로 위치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식과 교양의 젠더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남성교양이 민족, 민주, 사회와 연관되는 학식, 지식이었다면 여성 지식과 교양은 주로 문화적인 것으로 정착되었다.

여성교양을 통한 남성젠더의 지배전략의 이중성은 교양개념의 계층별 적용, 여성 간 상호 타자화 전략, 여성교양의 서구화 경향에서 목도되었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문화적 교양, 예술적 교양, 서구적 교양, 에티켓 등으로서, 이미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에게 다시 ‘전통’ 또는 ‘전통적’ 가치를 거론할 수 없었던 남성젠더들이 여성을 제도화 하는 기제로 사용한 방식이었다. 이것이 1950년대 남성젠더가 ‘여성교양’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들을 호명하는 방식이었다. ‘위험한 여성’들을 미지의 서구적 교양으로 유인하면서 흐려진 젠더 경계를 다시 세우고 젠더질서를 재편하여 새로운 ‘남성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남성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기제였다.

반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역사적 상대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 관계설정 하면서, 남성과 동일한 민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여성교양을 역설하였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 Bildung의 내포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여성

젠더의 여성교양은 culture에 가까웠다. 남성젠더에게 여성은 계몽의 대상에 그쳤으나,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여성이 계몽의 대상이면서 주체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1962년 이후의 2기에는 여성교양의 개념이 국민교양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이 시기 여성교양은 세대론에 입각하여 민족적, 사회적, 국가적 구태를 척결하는 여성의 지식과 능력으로 요약되었고, 젠더 범주보다는 세대 범주가 우선성으로 작동하였다. 남성젠더와 여성젠더 논객의 언설 내용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19 이후 여성교양으로 요구된 것은 ‘산 교양’,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양’이었으며, 세대론에서 산 교양의 여성 주체는 신세대로 호명되었다. 이는 5·16 이후 더욱 강조되는데, 이때 여성교양은 국민교양으로 전환되며, ‘군사화되는 교양’의 면모를 드러낸다. 하지만 아직 국민교양 = 군사화된 교양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여성은 1950년대의 ‘시민 우선성’(남성젠더)·‘여성 개인 우선성’(여성젠더)에서 ‘어머니 우선성’으로 재배치된다. 여성교양의 전환은 계몽의 대상도 수정하였는데, 1950년의 여성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는 중상층에서 1962년부터는 전 대중으로 바뀐다.

1965년 이후에 이르면 ‘교양의 의미가 퇴색하여 여성교양이란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부학 등의 전문성과 더불어 교양/전문의 이분법이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주부 전문성, 여대생의 전문성 등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어머니학으로 명명된 어머니교양의 핵심은 과학적 합리적 어머니에서 더 나아가 ‘자녀와 동료가 되는’ 어머니, 자녀와 정서적 공감대를 이룰 뿐 아니라 자녀의 개성을 포착하여 그에 맞는 정서교육까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진 어머니였다. 신어머니는 봉사와 희생으로 가족을 돌봄으로서 국가에 봉사는 도구적 어머니였으며, 전통적인 여인상

의 희생 봉사 정신을 차용함으로써 전통은 모성 이데올로기 정착에 활용되었다.

주부학은 주부의 영역이 전문영역 및 분과영역이란 인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즉 ‘제도로서의 주부’로서, 이제 주부는 단순히 가정을 가진 여성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여성, 또는 지녀야 할 규범으로 보는 시선이다. 주부교양은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넓고 상세하게 요청되었다.

2기의 주부는 예전의 어머니의 위상을 수정하고 전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권력을 지니게 된다. 이는 전업 주부가 막스 베버적 의미의 합리적 지배를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때 ‘제도로서의 주부’ 하에서 주부의 지배는 여성권력의 기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주부는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재량권’이라든가 또는 ‘공적 영역과 생산노동에서 배제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비권력자 형태’,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폄하될 것이 아니라, 재생산노동에 대한 재해석과 아울러 수정되어야 한다.

생산성 및 효율성에 입각한 근대경제학의 ‘노동’ 개념에서 ‘보살핌’(케어)에 입각한 ‘보살핌 경제’(care economy)로의 수정이 요구된다. 페미니즘 경제학(feminist economics)은 보살핌노동과 가족의 상대적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생산성 및 효율성 위주의 발전·개발 관점의 근대경제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보살핌 노동과 가족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면, 주부라는 가정 내 여성을 새로운 변혁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비전이 가능하다.

2기 후반부의 특징 중 하나는 교양 개념이 ‘전문이 아닌’ ‘비전문’으로 정착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교양주의를 배척하는 기제가 되었는데, 지식의 전문화에 기초하여 대학의 전문분과학은 교양을 타자화 하였다. 전문화 주의는 교양의 필요성을 약화 또는 무화

시킨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전문직업과 연관된 전문분과학은 교양이라는 일반적 지식 또는 보편적 지식체계를 타자화 하는 시스템이다. 1965년경부터 교양은 시민교양 또는 국민교양이라는 범박한 범주에서 벗어나 각종 ‘전문’성 및 ‘실용’성과 대결해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걷게 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1950년대는 ‘해방 전후기와 군부독재기 사이에 낀’ 과도기나 침체기, 반동기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는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여성을 타자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1950년대는 여성젠더에 의한 역사적 상대성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국가, 사회, 시민과 페미니즘의 ‘불행하지 않은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1960년대 역시 주부교양을 일종의 전문영역으로 설정하고, 여성 권력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 시민과 페미니즘의 ‘불행하지 않은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상허학회,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 깊은샘, 2006.
- 이임하, 『한국전쟁과 젠더: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 최재서, 『교양론』, 박영사, 1963.
-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 노버트 엘리아스, 유희수 옮김, 『문명화 과정: 매너의 역사』, 신서원, 1995, 2001.
- 문승숙, 이현정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 문화, 2007.
- 매슈 아놀드, 나영균 역, 『교양과 무질서』, 한길사, 2006.
- 서경식·노마 필드·카토 슈이치, 이목 옮김, 『교양, 모든 것의 시작』, 노마드 북스, 2007.
- 앤 쇼요우스틱 사쑨 편,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1989.
- J. SAcott, 荻野美穂 역, 『ジェンダーと 歴史學』, 平凡社, 1992, 2002.
- 原 伸子, 『ジェンダーと 『경제학비판』』, 『市長とジェンダ』, 法政大學出版局, 2005.
- 村松安子, 『『ジェンダーと開發』論の 形成と展開』, 未來社, 2005.
- 阿部恒久 外 編, 『男性史 3』, 日本經濟評論社, 2007.

2. 논문

- 김복순, 「비판적 사고론의 한계와 통합적 말글쓰기의 전망」, 『현대문학의 연구』 제30집, 2006.11, 203~244쪽.
-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제17집, 2007, 177~223쪽.
-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 5~51쪽.
- 김은미,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성별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2001, 183~212쪽.
-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2001, 45~78쪽.

- 문승숙, 『민족공동체만들기』, 최정무 외 저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 민족주의』, 삼인, 2001, 53~88쪽.
- 이수자,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여성주의 문화론적 성찰』, 『여성연구논총』 제15집,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2000, 169~193쪽.
- 이중하, 『남성적 계몽의 해석학』, 『철학연구』 제74집, 2006, 63~126쪽.
- 신인섭, 『교양개념의 변용을 통해 본 일본 근대문학의 전개양상 연구-다이쇼 교양주의와 일본근대문학』, 『일본어문학』, 제23집, 2004, 343~364쪽.
-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사회과학연구』 제15집 1호, 2007, 142~184쪽.
- 정현백, 『새로운 여성사 쓰기』, 『여성사 다시쓰기』, 당대, 2007, 15~62쪽.
- 조 형, 『여성주의 시민화 시대의 시티즌십과 시민사회』,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 이화 여대출판부, 2007, 17~70쪽.
- 오장미경, 『시민사회론과 페미니즘』, 『여성과 사회』, 1997, 255~275쪽.

Abstract

Redeployment of Woman's Bildung and Gender Politics after War

Kim, Bok-soon

After war, Men and Women were constructed in different ways and Woman's Bildung contained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gender, generation and times. Woman's Bildung after war was usually civil Bildung. Woman's Bildung of man's gender admitted woman's qualification as positive particularity under the male-centered universality but it was premised that women were inferior partner, different from woman's Bildung of Woman's gender that denied such inferiority and emphasized historical relativity.

Woman's Bildung of man's gender were to tame 'dangerous women' by using unknown western Bildung and rewrite new 'mens' history' by reconstructing gender boundaries.

After 1962, woman's building were changed to national Bildung and after 1965, with a specialized science of housewife, Bildung/each science branch were started to be divided. 'Housewife as a system' was considered as the epoch of the beginning of woman powers.

1950's and 1960's were the decades which feminism and nations, societies, civilians were not-unhappy combined.

Key words : woman's Bildung, male-centered enlightenment, citizen Bildung, nation Bildung, militarized Bildung, new-mother, new-housewife, woman power, male-centered universality, positive particularity,

historical relativity, care economy, feminist economics, etiquette.

- 본 논문은 10월 30일 투고되어 11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게재가 확정되었음.